

제과기술의 산실, 프랑스로 떠나자

해외 유학에 관한 모든 것 - 프랑스 편 I

최근 들어 해외 유학에 대한 기술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호부터 해외 유학 시리즈를 신설했다. 우선 그 첫 번째 프랑스 편으로 유학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현지 학교 소개까지 자세한 정보를 몇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필자 / 김경란>
 이화여대 비서학과 졸업
 프랑스 Jean Ferrandi 졸업
 CAP 취득
 Fouchon 근무
 현재 건국대 농축대학원 재학중
 통역과 번역일 프리랜서로 활동

20세기가 저물고 새 천년이 밝았다.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하나쯤 세우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21세기를 맞는 첫해인 만큼 뭔가 남다른 각오가 생길 것이다. 특히 제과·제빵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로 유학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프랑스에서의 유학 생활을 바탕으로 프랑스 장·단기 유학을 원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유학을 떠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프랑스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호부터 본격적으로 장·단기 유학이 가능한 학교를 소개한다.

1) 프랑스어

유학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언어의 습득이다. 물론 제과·제빵에서는 기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만 기술만을 믿고 언어를 소홀히 한다면 유학 기간 동안 배울 수 있는 것의 절반은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도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언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법이다.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학을 가기 전 국내에서 배우는 방법과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배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프랑스어를 교육하는 기관으로는 알리앙스 프랑세즈(서울, 부산, 청주, 광주 등에 있다)와 대학 부설 언어 교육원 등이 있다.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대학보다 수강료가 다소 비싼 것이 흠이지만 프랑스인이 직접 가르치는 과목이 많아 회화를 배우기에 적합하다. 반면 대학 부설 언어 교육원에서는 문법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프랑스 현지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랑스어를 교육하는 기관이 많아 이곳에서 일정 기간 언어를 습득한 후 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어학원에 다니면서 프랑스어를 시작한다 해도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간단한 문장 정도는 이해하고 말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자(Visa)

관광 협정상 프랑스에서의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지만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 발급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프랑스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다. 즉 본인이 입학을 원하는 학교에 먼저 지원을 한 다음 합격을 하면 입학허가서가 나오는 데 이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프랑스어를 교육하는 현지 어학기관에 우편으로 등

록을 신청하고(이 때 8개월 이상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곳으로부터 등록서류가 오면 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자는 프랑스에 입국하여 체류증을 신청할 때에도 꼭 필요한 서류다. 체류증은 허가된 일정 기간 동안 프랑스 내에서의 체류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일종의 신분증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프랑스에 도착한 후 일주일 내에 거주지 관할 경시청(Prefecture)에 신청해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 누구나 체류증에는 신분이 학생(Studiant)이라고 적혀 있다. 체류증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 혹은 유효기간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체류증 유효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만료되기 직전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예를 들어 의료보험 가입증명서와 학생증, 주거 증명 등)는 평소에 잘 챙겨 두는 것이 좋다.

비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비자과로 연락하면 된다. 여권과 비자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프랑스로 떠날 수 있다.

3) 현지 숙소

Bienvenue en France! (프랑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묵을 수 있는 숙소로는 학교내의 기숙사 또는 외부의 사설 기숙사, 호텔, 민박, 하숙, 자취 등이 있다. 기숙사의 경우 학교나 어학기관의 소개로 출국 전에 예약이 가능한데 물론 현지에서 직접 알아볼 수도 있다. 호텔에 투숙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다. 민박, 하숙, 자취 등은 현지에서 발행되는 한인신문, 또는 베틀시장 신문 등을 참고하면 알아볼 수 있으며 직접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통해 아파트를 구할 수도 있다. 베틀시장 신문은 파리나 리옹 같은 대도시의 경우 한인 식당이나 면세점, 식품점 등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다.



프랑스에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한 후 월세로 계약해야 한다. 물론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어 부동산측 중개인(대리인)과 계약한다.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혹은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집을 비워줄 때에는 거주기간 동안 얼마나 집을 깨끗하게 사용했는지 그 상태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에 의해 보증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보증금 일부를 지불해야 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유학생 사이에서 많은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한다. 간혹 전구가 제대로 달려 있는지, 못을 친 자국이 있는지의 여부까지 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집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얼핏 보기에 프랑스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에 대해 눈꼽만큼도 인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명백히 지키는 것은 엄연히 프랑스 현지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프랑스라는 사회와 사고방식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동시에 제과·제빵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4) 생활비

유학을 떠날 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생활비는 개인의 씀씀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겠지만, 파리에 거주하느냐 혹은 지방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크게 차이난다.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주거비용이다. 파리에서 한 사람 기준으로 볼 때 (사설)기숙사에 들거나 자취를 할 경우 대략 3,000~4,000프랑, 원룸 스튜디오는 4,000~4,500프랑이 드는데 여기에 식비나 교통비 등을 포함하면 약 6,000~7,000프랑 정도의 비용이 든다(단 학비 제외. 환율은 1999년 12월 기준으로 1프랑에 약 180원). 그러나 지방에 거주할 경우에는 주거비용이 파리의 대략 절반 정도 수준이다.

학비는 보통 일반 대학의 경우 모두 국립이기 때문에 무료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과·제빵 관련 학교는 사립인데다 실습을 위한 재료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학비가 비싼 편이다. 학비에 관해서는 다음 호부터 학교별로 자세히 소개하겠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대학에서 2년 이상 지난 경우에만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는 불법 노동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조달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프랑스의 교육 제도

프랑스에서는 16세까지 의무교육으로 누구나 일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제과·제빵은 직업교육에 속하는데 2년 동안의 정규 과정을 거쳐 CAP라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2년 동안 한 달의 2주는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거나 실습을 하며 나머지 2주는 자신을 고용한 작업장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현장 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규 과정은 연령 제한이 있어서 아무나 입학할 수 없다. 또한 학비는 학생이 고용된 작업장의 업주가 일부를,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정규 과정에 외국인의 입학이 허락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 편이다. 외국인이 진학 가능한 반은 정규 과정 이외에 직업을 전환하려는 성인을 위한 재교육 과정인 성인 과정(1년 코스)이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CAP 학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CAP 준비, 즉 학위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과정도 많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별 소개에서 다루기로 하자.

교육 과정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프랑스에서 이루어지는 제과·제빵 교육은 이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1년 내지 2년의 과정과 기존의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단기간(하루에서 일주일 등) 동안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으로 소개할 학교는 다음과 같은데, 비교적 외국인의 입학이 용이한 편이다.

- Le Cordon Bleu - 파리 소재 - Jean Ferrandi - 파리 소재
- INBP (Institut national de la boulangerie et de p tisserie) - 루앙 소재
- Ecole Len tre - 플레지르 소재 - Ecole Ritz-Escoffier - 파리 소재
- ENSP (Ecole nationale sup rieure de la p tisserie) - 이생쥬 소재
- Bellouet Conseil - 파리 소재

알아 두면 편리한 전화번호

- 알리앙스 프랑세즈 강북 (회현동 소재) : 755-4972, 강남 (강남역 소재) : 555-1125~6
- 프랑스 대사관 비자과 (대사관 대표전화) (02) 312-3272